

## 벤투호 평양 원정에 '최정예' 멤버 승선

과울루 벤투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월드컵 예선 북한과의 평양 원정 경기를 위해 최정예 요원들로 팀을 꾸렸다.

지난 3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벤투 감독은 이날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10월에 열리는 2022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2경기에 나설 25인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대표팀은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은 10일 화성에서 스리랑카와 예선 2차전을 치른 뒤 닷새 뒤인 15일 평양에서 북한과 예선 3차전을 벌인다.

벤투 감독도 부임 후 처음으로 갖는 남북 대결을 의식하고 있다. 벤투 감독은 "난 외국인이지만 한국 국민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 생각을 이해하고 있고, 더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중요한 점은 최대한 경기에만 집중해서 승점을 따오는 것이다.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 경기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전 승리를 위해 벤투 감독은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최정예 멤버를 꾸렸다. 손흥민(토트넘)을 포함해 황희찬(잘츠부르크), 황의조(보르도) 등 유럽에서 뛰는 멤버들을 총동원했다.

'벤투호의 황태자'로 불리는 황인범(벤투버) 역시 이름을 올렸다. 황인범의 경기력 논란에 대해서는 "중원에서 전전후로 불릴 만큼 미드필더로서 여러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그를 감쌌다.

벤투 감독 부임 초기 눈에 띄는 활약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이후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멀어졌던 남태희도 대표팀에 가세했다. 벤투 "큰 부상 때문에 대표팀에서 장기간 뛰지 못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벤투 감독은 "첫 번째 경기를 잘 치러야 두 번째 경기도 쉽게 풀어갈 수 있다"며 "우린 북한과만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스리랑카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하고 있다. 스리랑카와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어떻게 나올지도 계속 살피며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재미교포 골퍼 노예림, "LPGA 투어 시드 받기 위해 노력할 것"

지난 8월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1타 차 준우승을 기록하며 관심을 모은 재미동포 노예림(18)이 오는 2020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30일 '골프다이제스트'에 따르면 노예림은 이날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총상금 15억 원, 우승상금 3억7,500만 원)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내년 LPGA 투어 시드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걸스 주니어 PGA 챔피언십과 US 걸스 주니어 챔피언십, 캐나다 여자 아마추어 선수권을 연달아 제패하며 아마추어 무대를 평정했던 노예림은 올해 프로로 전향해, 월요 예선, 스폰서 초청 등을 통해 LPGA 대회에 참가했다.

지난 7월 손베리 크리크 LPGA 클래식에 출전해 우승 경쟁 끝에 공동 6위를 기록했고, 특히 지난 8월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마지막 날 17번 홀까지 선두를 달리다가 마지막 홀에서 해나 그린(호주)에게 우승을 내주면서 준

우승에 자리했다.

LPGA 투어 시드가 없어 월요 예선을 통과해 포틀랜드 클래식에 참가했던 노예림은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우승했다면 바로 LPGA 투어 풀 시드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우승을 놓치면서 큐 스쿨로 향하게 됐다.

노예림은 유창한 한국말로 "이번 대회가 끝나자마자 2차 큐 스쿨부터 시작한다. 컨디션 적응, 시차 적응을 빨리해야 한다. 잘 쉬고 2차, 3차 통과해 내년 시드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노예림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나고 자랐지만, 언제나 부모의 나라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노예림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도 엄마가 해주시는 한식을 먹고 한국어로 대화해서 한국에 오는 건 그냥 또 다른 고향에 오는 느낌"이라며 "김치찌개나 미역국, 삼겹살, 소고기뭇국 등을 좋아하는데 한국에 오면 다양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 즐겁다"고 말했다. 집에서는 한국어만 사용하고 영어는 집 밖에서만 사용한다는 그는 요즘 한국 TV프로그램에 푹 빠졌다고 하며 "한국 TV를 보기 시작한 뒤로 미국 TV는 재미 없어 못 보겠더라"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 한국 남자들, 여자 골프 세계랭킹... 1·2·3위 독식

'세계 최강' 한국 여자골프가 역대 처음으로 세계랭킹 1·2·3위를 휩쓸었다.

2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직전 주 4위였던 이정은(23)이 한 계단 오른 3위가 됐다. 또 1위 고진영(24)과 2위 박성현(26)이 기존 랭킹을 사수하면서 한국선수 세 명이 나란히 세계 '톱 3'에 자리했다.

2006년 창설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한 나라 선수들이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독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9월 초 유소연(29)이 1위, 박성현이 2위에 올라 역대 첫 1, 2위를 차지한 데 이어 2년 만에 3위까지 넓혔다. 10위 내에는 박인비(31)까지 한국 선수 4명이 포진했다.

한국 선수들은 올해 열린 LPGA 투어 26개 대회에서

절반인 13승을 합작하는 등 역대 한 시즌 최다승 기록도 다시 쓸 태세다. 역대 최다승 기록은 2015년과 2017년의 15승이었다. 올해 남은 대회는 현재 6개이다.

세계랭킹 1위에 오른 선수를 나라별로 분류해 보면 한국 여자골프의 최강 질주가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지난 30일 현재 한국은 모두 5명의 세계 톱랭커를 보유해 부문 1위에 올랐다. 2010년 5월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1위에 오른 신지애(31)를 시작으로 박인비, 유소연(29), 박성현에 이어 최근 고진영이 여자골프의 '지존' 자리에 앉았다.

이들 5명이 세계랭킹 1위를 지킨 날짜를 주간 단위로 표시하면 총 192주에 달한다. 선수별로는 박인비가 통산 106주 동안 세계랭킹 1위를 지켰고, 신지애가 25주, 유소연이 19주, 박성현과 고진영이 각각 20주와 22주 동안 1위 자리를 유지했다.

### 숨은그림찾기 정답



### 1284호 낱말퍼즐 정답

1	베	짱	2	이			3	빈	티	4	지
	레		5	참	6	여	정	부			린
7	모	8	종			치			9	사	내
							10	뿔	조	사	
			11	소	양	강				건	
12	야	식					13	연		14	건
	바			16	자	린	고	17	비		떨
18	위	자	료					19	방	망	이